

< 9월 27일 주일 가정예배 설교 >

\* 성경본문 : 출애굽기 17:11-13

\* 설교제목 : 믿음의 손을 들라

(출애굽기 17:11-13)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얼마 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별뚱별이 관측되었습니다. 무심코 밤하늘을 보았다가 밤하늘을 가르는 별뚱별을 본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별뚱별은 재미있는 사건으로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 별뚱별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운석을 찾아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죽하면 운석을 발견했을 때의 법적인 문제를 언급한 블로그 글까지 나옵니다.

별뚱별이 일종의 ‘로또’가 된 지금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살기 빠빠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목돈을 벌 수 있는 대박을 노리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봅시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아말렉 민족의 기습을 받습니다. 아말렉 민족은 광야에 살던 민족으로,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싸움에서 상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많았겠지만, 싸움의 실력은 아말렉 민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건장한 남자들을 선발한 뒤에,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형 아론, 그리고 훌과 함께 옆에 있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가 버틸 수 있는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때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먼저 모세에게 돌 방석을 깔아준 뒤에, 각각 한쪽 팔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팔을 내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도 두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 팔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팔에 승리의 힘을 주셨던 이유는 빈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운석을 찾는 것입니까? 대박을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올리면서, 우리의 연약한 빈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빈손을 내보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옛날 모든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빈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